

# 圖書館의 開拓者 (其一)

파니치, 쉘 안토니 (Panizzi, Sir Anthony) 篇

李 鳳 順

파니치(Panizzi)氏는 大英博物館長인 동시에 圖書學者였다. 그는 1797년 이태리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모친도 역시 법률가의 집안 출신이었다. 1818년 Parma 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1822년 이태리혁명에 참가하여 구속되었다가 1823년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1828년에 University College 의 이태리어교수로 있다가 1831년에는 大英博物館 司書가 되었다.

大英博物館(British Museum)은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국립박물관인 동시에 국립도서관이다. 파니치(Panizzi)氏가 司書로 취임하였을 그 당시 大英博物館은 아주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Montagu House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했고 資料의 정비와 정리가 필요했고 아주 철저한 관리자가 필요 했던 때였다. 파니치氏는 우선 理事會에 제언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는 먼저 編目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目錄을 단시일에 완성하였다. 그 다음단계로 그는 編目規則을 만들고 연람실을 개선하는 한편 도서구입비 증액 또는 기증도서 수집에 노력하였다. 1841년 目錄 第一卷이 작성되었을때 冊子形式으로 된 目錄의 불편을 느낀 몇몇 사람들이 冊子形式의 目錄보다는 Card式目錄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를 理事會에 제언하였다. 그러나 불행이도 파니치

氏는 이를 반대하였다. 이때 그가 반대하지 않았던들 大英博物館의 冊子式目錄이 오늘날까지 남아 내려오지 않았을지도 모을 일이었다. 그의 강한 성격에서 오는 고집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는 Card式目錄의 편리한 점이나 경제적인 면을 미처 생각 하지 못하였다. 이일은 後日까지 그를 존경하는 도서관 학자들이 섬세하게 생각하는 점이었다. 먼 後日에 와서 Panizzi(파니치)氏가 주장한 冊子式目錄이 대단한 불편을 가져왔고 심지어는 보관하는데 까지 문제가 되게 되었다. 그는 한편으로 이태리古典과 書誌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Panizzi(파니치)氏는 무슨 일이든지 손수 몸담아 하였고 어느누구 보다도 열심히 하였다. 그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1850년에는 연람목록을 전부 완성하였고 그 당시 세계에서 일품번호로 뒤떨어져 있던 博物館을 第一位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1856년에는 大英博物館 館長이 되었다. 관장이 된 후에도 司書로 있을때 보다 못지않게 부지런하게 일하였다. 매사에 정의와 열을 가지고 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의 설계로 이루어진 신축건물이 1857년에 준공되었다. 그의 放射狀 大閱覽室과 Gallery를 이용하여 만든 書庫는 後世까지 그의 이름을 남기고 있다.

現大英博物館圖書館의 기초가 된 그의 도서관 經營의 제능은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관장으로 있었던 그루넬이 바로 현대도서관의 요람기였던만큼 할일도 많았고 또 그의 공로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말하자면 도서관계의 선구자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분이였다. 그가 後任까지 남겨놓은 것은 그의 빛나는 업적 그것 보다도 일에 임하는 그의 熱과 精神이 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박물관 도서관 운영의 목표를 아래 세가지로 정하였다.

- 1) 박물관 (도서관)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이는 文化를 널리 전하는 하나의 Institution (기관)이다.
- 2) 박물관 (도서관)도 국가 행정기구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부들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 3) 절대로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유로운 관리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내 걸고 그는 항상 싸웠던 것이다. 그는 매사에 대답하였고 그분 앞에서는 누구든지 굴하지 않고 버텨낼 수가 없었다. 그의 앞에는 굳은 의지와 끈기 있는 노력이 있을 뿐이었다. 1866년 박물관을 사적할때까지 그는 일심전력으로 박물관 도서관 사업에 종사하였다.

영국 시민권을 그가 얻은것은 1832년이였다. 그러나 역시 異國人的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는 때도 많았다. 그가 영국에 와서 이태리어선생으로 또는 박물관 도서관관장으로 있을당시에도 역시 그는 정치적인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태

리 애국자들과 항상 연락을 끊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이태리에 대한 인연을 끊지 못하고 이태리독립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으나 그는 끝내 영국시민권을 고집 하고 영국을 떠나지 아니 하였다.

그는 비단 도서관인으로서만 아니라 정치가 범람가로서도 위대하였다. 이태리가 만약 자유로운 나라였다더라면 그는 더 크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무한한 능력과 정열을 단지 한골수로 쏟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재성되었고 또 오늘날의 大英博物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도서관학을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라기 보다는 몸소 현장에 나가서 도서관학을 실천에 옮긴 학자라고 보고 싶다. 그에게 弱點이 있었다면 어떤 적은 일에 전전을 고집하는 일이였을 것이다. 예를 들면 冊子日錄을 고집한 것이라던가 자연과학부분을 자기 자신이 싫어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배보내려 했다던가 이런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던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때 매사에 부드러운 마음씨로 대하고 훌륭한 人格의 所有者였다. 그의 文學的 趣味도 보통이 아니었다. 18世紀學者들이 읽던 冊은 떼지 않고 읽었고 특히 Dante, Virgil, Horace 같은 분의 冊은 몇번이고 재독삼독하였다 한다.

그의 말년은 특히 1868년에 얻은 실병으로 고생이 있었으나 은퇴후는 바로 박물관 후면에 있는 룬돈의 저택에서 비교적 조용한 여생을 보냈다. 그는 St, mary 케토릭 묘지에 묻혀 있고 그의 초상화는 大英博物館에 걸려 있다.

(梨花女大 圖書館學科 科長)